東大新聞

發行人 徐煥珏
編輯人 南都泳
主幹 宋赫
編輯部長 申寬浩

發行所
우편번호 100
서울市中区筆洞3街26
東國大学校內
東大新聞社
電話交換 ㉑8131—9
本社直通 ㉑8577

每週月曜日發行

優等奬學生발표

各科首席 授業料全免 韓國奬學財團장학생등도

○… 우등장학생등 1972学年度 第二学期 장학생명단이 지난6일 발표되었다。학생과의 発表…○
○…에의하면숙校首席은 平均97·2를얻은진인길君(수학과육4학년)으로 밝혀졌으며, 우등장학…○
○…생外 한국장학재단장학생및 5·16장학생등 이번학기에 장학혜택을받는 수혜자 총수는14…○
○…2명에 이른다。

한편 이번 우등奬学生선발에 있어서는지난1学期各科에서 首席을 차지한 学生中 平均 85點이상 (20학점이상취득)인 자이며, 各科 首席인 학생이 他奬学金을 지급받을때는 次席者中 85점이상인자가 수업료全額을 免除받게되는데 한국장학재단의 장학금은 各 10만원, 5·16장학금은 各 8만원씩 지급된다。

다음은 우등장학생을 비롯, 한국장학재단 장학생、5·16장학、徒弟장학、기타奬学生 名単이다。

※우등奬学生

◇仏敎大学

▲김무생 (仏1) ▲정혜영 (仏2) ▲김경희 (仏4) ▲배용 (哲2) ▲허윤도 (哲3) ▲윤덕호 (印哲2) ▲정영복 (印哲3) ▲박세인 (印哲4) ▲윤낭례 (仏奬1) ▲김미영 (仏奬2) ▲남윤 (僧伽1)

◇文理科大学

▲정우영 (国1) ▲장진서 (国2) ▲정귀복 (国3) ▲강정순 (国4) ▲강호필 (英1) ▲김영자 (英2) ▲정갑동 (英4) ▲이우철 (英3) ▲심옥자 (史2) ▲김도균 (演2) ▲김태중 (演映2) ▲김영길 (演映3) ▲오명산 (演映4) ▲한순호 (敎2) ▲이민희 (敎3) ▲이용자 (敎4) ▲이완기 (物1) ▲윤장현 (物2) ▲김동욱 (物3) ▲강태원 (物4) ▲이수형 (化3) ▲구자혁 (化4) ▲임학봉 (統計2) ▲송옥희 (統計3) ▲양정기 (統計4) ▲한용섭 (電算1)

◇法政大学

▲김철옥 (法1) ▲백송범 (法2) ▲윤태만 (法3) ▲김복경 (法4) ▲박오영 (政外1) ▲유성선 (政外2) ▲이덕영 (政外4) ▲최기호 (行政1) ▲주영운 (行政2) ▲최홍석 (政外3) ▲박두균 (政外4) ▲김영진 (行政1) ▲김충환 (行政2) ▲최창섭 (行政3) ▲임철규 (行政4)

◇経商大学

▲마기영 (経済1) ▲허한욱 (経済2) ▲박성철 (経済3) ▲박철현 (経済4) ▲박은철 (貿1) ▲박성수 (貿2) ▲장봉수 (貿3) ▲조영철 (貿4) ▲권의균 (経営1) ▲송문헌 (経営2) ▲안준환 (経営3) ▲농학 (農学3) ▲곽치식 (農学4) ▲어연호 (林学2) ▲이봉우 (林学3) ▲강인철 (林・土木3) ▲김동조 (農経2) ▲김귀준 (農経3) ▲홍효기 (農経4) ▲김정태 (農生2) ▲서천석 (農生3) ▲우윤 (農生4)。

◇工科大学

▲이경재 (電子2) ▲조은준 (電子3) ▲이인재 (電子4) ▲이정호 (電気工2) ▲남상옥 (土木2) ▲이신재 (土木3) ▲권병섭 (土木4) ▲이상윤 (建築1) ▲유진성 (建築2) ▲오부득 (建築3) ▲이현구 (高分2) ▲이태호 (高分3) ▲남천우 (高分4) ▲최계숙 (食工1) ▲이태호 (食工2) ▲최원춘 (食工3) ▲최홍관 (食工4) ▲박진인 (工経2) ▲전유철 (工経3) ▲김남욱 (工経4)

◇師範大学

▲박임순 (国敎1) ▲정금채 (国敎2) ▲전일자 (国敎3) ▲황영한 (国敎4) ▲조병노 (社敎・歴史専2) ▲심순자 (社敎・地理専2) ▲이영란 (社敎・地理3) ▲김정희 (社敎・歴史専4) ▲권영애 (社敎・歴史専4) ▲임동일 (社敎・地理専4) ▲임문규 (数敎1) ▲신상웅 (数敎2) ▲이명규 (数敎3) ▲이경숙 (数4) ▲정경석 (経営2) ▲구본상 (経営3) ▲임철규 (経営4) ▲김충환 (経営2) ▲김철옥 (経営3) ▲김철옥 (経営4) ▲권의균 (経営1) ▲송문헌 (経営2) ▲송달근 (高分3) ▲변영묘 (食工2)

◇其他奬学

▲전인수 (仏2) ▲불교장학 ▲이만 (仏3) ▲도제々 (仏3) ▲宗立学校 ▲김현동 (仏3) ▲유재식 (農学3) ▲김동조 (農経2) ▲홍효기 (農経4) ▲김정태 (農生2) ▲서천석 (農生3) ▲우윤 (農生4)。

◇工科大学

▲이경재 (電子2) ▲조은준 (電子3) ▲이인재 (電子4) ▲이정호 (電気工2) ▲남상옥 (土木2) ▲이신재 (土木3) ▲권병섭 (土木4) ▲이상윤 (建築1) ▲유진성 (建築2) ▲오부득 (建築3) ▲이현구 (高分2) ▲이태호 (高分3) ▲남천우 (高分4) ▲최계숙 (食工1) ▲이태호 (食工2) ▲최원춘 (食工3) ▲최홍관 (食工4) ▲박진인 (工経2) ▲전유철 (工経3) ▲김남욱 (工経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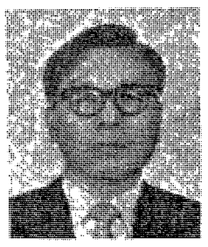
◇師範大学

▲박임순 (国敎1) ▲정금채 (国敎2) ▲전일자 (国敎3) ▲황영한 (国敎4) ▲조병노 (社敎・歴史専2) ▲심순자 (社敎・地理専2) ▲이영란 (社敎・地理3) ▲김정희 (社敎・歴史専4) ▲권영애 (社敎・歴史専4) ▲임동일 (社敎・地理専4) ▲임문규 (数敎1) ▲신상웅 (数敎2) ▲이명규 (数敎3) ▲이경숙 (数4) ▲정경석 (経営2) ▲구본상 (経営3) ▲임철규 (経営4) ▲김충환 (経営2) ▲김철옥 (経営3) ▲김철옥 (経営4) ▲권의균 (経営1) ▲송문헌 (経営2) ▲송달근 (高分3) ▲변영묘 (食工2)

◇其他奬学

▲전인수 (仏2) ▲불교장학 ▲이만 (仏3) ▲도제々 (仏3) ▲宗立学校 ▲김현동 (仏3) ▲유재식 (農学3) ▲곽치식 (農学3) ▲어연호 (林学2) ▲이봉우 (林学3) ▲강인철 (林・土木3) ▲김동조 (農経2) ▲홍효기 (農経3) ▲김귀준

南北對話의 性格



<法政大学長法博> 張 庚 鶴

平壤에 가서 그사람들과 이야기도 나누고 구경도 하고 들아와서, 여러가지 궁금한 体驗談을 신문에다 발표하고있다。

4·19후에 大学生들이 坂門店에가서 그곳 大学生들과 이야기를 하겠다고하면서 騷亂을피운 일이있었다。그날때 社会與論은 否定的이었다。지금 생각하면 大学生들은 先見之明이 있었는지도 모르겠다。그러나 모든 일에는때가 있는 법이다。

당시는 政府보수도, 야당도 모두 이번의 南北対話를 가지게 되었고, 또 世界情勢가 아직 南北対話를 가지게 되리만큼 成熟되지 못했던 것이 아니었을까。

하여튼 昨年에 赤十字会談이 板門店에서 열리면서 부터 우선 武装간첩이 南派되지 않는듯하며 武力南侵의 두려움이 사라지게 됨에하여 약간마음을놓고 삼수있게 필뭇한것이 우선 다행한 일이다。

板門店에서 両側이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어보니까 서로 어느程度 意思의 共通點을 発見하였기 때문에 이번에는 各自 自己「家庭」에로 相対方을 초대하게 되어, 北에서 먼저 초대를했고 平壤까지 南쪽 代表들이 갔다 오게된것이다。

人向의 行動에는 目的이없는 行動은 없는 법이다。

지금 南北이 対話를나누겠다고하는 것은 무슨 특적인가, 그것은 統一하자는 것이다。南北両側에서 統一을 念願하고 있는것이다。이렇게 우선대화의 목적이 形式上 同一한것이 이번의 南北赤十字에서는 南北対話의 目的을 달성하기위해서는 능숙한 대화의기술이 필요할것이다。

「対話의科学」이라할까, 높은 術敎를 써야만 될것같다。「플라톤」의 著書등에서 볼수있는 対話의 妙技를 터득치 않으면 안될것같다。

社会学者「플트」는 学問의 歴史는 形而上学에서 経験科学에로 발전하여 왔다고하였다。그의말인 統一論을 実験科学的 理念을 現実的인것으로 되어야할 것이다。

対話以前에는 統一理念은 一種의「神話」와 마찬가지였고 政治的 祭物로 利用당하여 왔던것이 아닐까。또 民族精神이나 民族理念이라는것도 마찬가지가 아니었던가。

비유한다면 解放前에는 심장이 하나였는데 解放 易, 旅行自由, 文化交流등을 활발히 전개하고있다 한다。

独逸의 경우는 6·25가없었다。韓国의 경우에는 6·25라는 悲劇의傷처가남아있기때문에 相互信의 風潮가 심하다고 할수있다。

그러므로 南北対話의進展은 南北間의 緊張緩和 그리고 人間의 命令밖에는없다。그러므로 対話의 길은 断絶되고 만다。対話의 길이 단절되는 곳에서 대화는 나와 남 사이 그리고 그의 눈에 모든 人間은 그렇다면 나와 남을 동등한 人格으로만 대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경우가있다。이곳에 사는 남을위하여 나를 희생하는 기특한 행위가 있다。모든 사람들이 人間 위하여 자기중심으로 달리고 있을때 나를버리고 남을 위하여 利他의 方向으로 행동하는 존재가있다。仏教가 말하는 보살이다。바로 이같은존재다。보살은 자신인 人間보다 衆生인 人間을 위하여 成道後 梵天의 권유를뿌리치고 衆生을 위한 대화의 成道後 열반의 世界에서 自慰의 生活을 누릴것을 梵天은 부처님에게 권유하였다。衆生의 無知(無明)한 対話의 길은 人間 執着한 衆生의 無知 (無明)에 있었기 때문이다。

<佛敎大仏敎科敎授> 徐 景 洙

對話의 本質

人間은 언어를 사용하는 동물인이라고 定義하는수가 있다。다른동물과 비교할때 이定義를 사용한다。그렇게 언어는 意思를 相対에게 전달하는 도구다。따라서 언어작용에는 전달하는主格과 전달되는 対格이있기 마련이다。즉 쉽게 표현하면 말하는人間과 듣는人間이 있다는 말이다。

두사람 이상 모여사는 곳이라면人間는 항상이웃에人間을 의식하지않을수없다。이人間을 이웃에人間으로 한 한상人間를 이웃에人間으로 의식한다。즉 이人間와人間은 同格으로 位置할수있다는 것이다。그렇건만, 이당위에人間만이있는, 즉, 人間만이 전부이고人間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너무많다。어린아이는 아직 몰라서 나만을 고집한다고하지만, 어른이 되어 남을 멸시하고 나만을 주장한다면 이보다더위험한 생각은없다。남을 멸시하는 근거는 남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남을 멸시할때, 즉 남의 존재를 없다고 생각할때, 나는 이만하여 진다。그렇건만, 이당위에人間만이있는, 즉, 人間만이 전부이고人間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는 아직 몰라서 나만을 고집한다고하지만, 어른이 되어 남을 멸시하고 나만을 주장한다면 이보다더위험한 생각은없다。남을 멸시하는 근거는 남을 없다고 생각하는데 있다。

남의 존재가 완전히무시되는 곳에는 나만의意志는 無限이 연장하려는 独裁家 한 사람의 自由밖에는 없다。따라서 한사람의 의지만을 전달하에 서로 相対를 알때 이루어 진다。아낄줄한 대화는 남을 나만큼 아낄줄아는 誠実性에 바탕을 둡니다。 成立됩니다。

남의인격을 적어도 나의人格과 同格으로 대접하는 사이에서만 진정한 대화는 오고가고할 수있다。나의 인격만을 주장하기 위하여 남을한 낱 道具로 취급하는사이에서 대화는 꽃이 피지않는다。

道具는 人格이 될수없는 것이다。

<法政大行政学科교수> 鄭 允 武

自·他同格化서 成立
宗教的으론 「慈悲」 「사랑」

※……지난 8月29日 27年의 막혔던장벽을깨……※
※……고 1次南北赤十字会談 본회의가 평양……※
※……에서열렸다。자칫 統一에의 성급한열……※
※……원으로 돌뜨기쉬운理性을 되찾아 対……※
※……話없는対決에서 対話있는対決로의 자……※
※……세를 잡아야할때이다。13일 서울에서……※
※……있을 2차본회담을앞두고「対話있는対……※
※……決」을세가方向에서 考察해본다。
※……

<편집자>

궁극目標 統一理念
內外兩面조건 考慮해야

<佛敎大哲学科敎授> 鄭 璇

「소크라테스」는 「나이어로그」를 「나이」와의 対話와 「아테네」의 「아그라」에모인것을 젊은이들과의 問答法으로 부터 哲学을 시작했다。

그것을 바로 神의 소리라기보다는 양심의 소리였던 것이다。하나의 人同이 두개의人同으로 分裂되고, 그「肉我」-現実我」와「靈我」-理想我」가 過度 두정이의싸움을 하는 程 그것이 苦悩의 体験이며 의식 이体験을 通하여서만 人同의 自己形成이 可能에의 길을 찾을수 있었던 것이다。「보이지는 나」와「보이는 나」의 절박한「나이어로그」-그것은 어디까지나 보이지도 않는 神과의「나이어로그」보다는 人同에게 理解可能性이 보다 더 좋투했던 것만을 사실이다。

良心과의 「나이어로그」-良心 속의 「나이어로그」-그것을 바로 神과의 그것이라고 해버리고 그만이지만, 적어도 人同 中心的인 「그레시아」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 부르진 않았던것이다。

차라리 푸짐한 神들의 잔치, 곧 神話를 꿈꾸었는데 있어서 神을 흉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착수였으며 不知其数 였음으로 唯一神의 隨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人同存在의 理想化이며 「神化」였음이 분명하다。樂天的인 人同의 本来的 制約性 脫皮 또는 補完에의 要求로서 나타나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人同의 自己「神化」작업의 過程으로서의 神話는 그레시아 사람들의 世界를 異次元的으로 증명케했고, 또 孤独의 寂落으로부터 自己를 救出하는데 성공적인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레시아 사람들은 神話를 通하여 人間과의 「나이어로그」를 더욱 충실하게 할수 있었다。그들은 福받은 겨레였다。「나이어로그」가 풍성했기 때문이다。

孤独 곧 도야지 말의 「Einsamkeit」는 文字 그대로 하나 뿐이어서 고독하다。

한데 「나이어로그」는 혼자선 안되고 반드시 누군가 둘이 있어야만 可能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서 즐거운 것이다。그레시아 말에서 「모노로그」의 「mono」는 하나의 뜻이며 「나이어로그」의 「dia」는 둘의 뜻이고 同과의 「나이어로그」를 의의 多樣하고도 眞実한 対話를 通하여서만 思想이 발전될 수있고 또 다양성을 띄울수 있음을 알 수있다。

「모노로그」와 独断論과 独裁制와 暴力과 破壞는 하나의 体系下에서만 可能한데 반하여 建設과 說得과 民主制와 調和論과 「나이어로그」는 또하나의 다른 体系의 산물이다。前者를 戦爭의 論理라고 할수있다면, 後者는 平和의 論理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변증법의 진정한 方向은 多樣의統一에 있다。民主의 世界는 多樣의 世界다。多의 理性的統一은 民主精神의 근간이되는 것이지만 多의 非体系的 統一은 反民主的精神일 뿐이다。百家가 爭鳴하고 千態万象이 있는그자리에서 우주의「하머니」를위하여 있을때 「但即是, 多即一」, 特殊即 보편」의調和의 世界가成立하는 것이다。対話의産物이다。異質的 他存在에 対한寬容 (Tolerance)

이다。寬容의 倫理로 절충이 있는 곳에 存在가 열린다。

「소리」란 (Logos) -뜻 -存在」의 体系는 古代 그레시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 底流로서 흐르고있었다。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古代 이스라엘 사람들의 경우에는 그렇지 아닌 「나이어로그스」를 通하여 神과의 그것이 있었다고 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 또그것은 寬容性이라고 하겠는데 이렇게 되면 濫発論에 빠지는 결과 밖에 되지않는다。그런데여기서 寬容의 德을 길으켜 세울수있는 可能의 근거는 어디있는가!그것은한마디로 말해서 思惟作用에있다。 사유는 用이며, 反問 作用의에, 反省作用이다。 思惟의최고의 形態를 우리는 反省 작용에서 찾을수있거니와 의 사람은 되돌아 생각함이니, 이 「남」을 通하여 먼저 自己自身을 인식하게 되고, 이 인식은 「보는 나」와 「보이는 나」의 구분을 가져다 주고 그 구분은 「나」와 「나」의 대화를 가능케 한것이다。

「나」와 「나」의 대화는 나와 남 사이 그리고 自己自身과의 그것이 있을 때 비로소 이루어지고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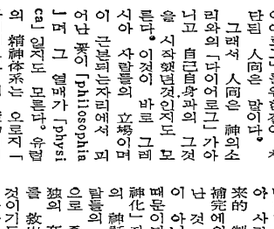
그래서 이宗敎는 神의 放逐의 청취가능성을 -즉 진시키키려한 피나는 努力의 표현이라고 할수도 있겠거니와 2千여년의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순교의 역사에도 불구하고 그 成果는 우리가 넉넉히 살필수있는바와 같다。

神과 人同과의 「나이어로그」는 尙今도 大衆的이 아니며 따라서 交通에 있어서 神을 흉수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착수였으며 不知其敎 였음으로 唯一神의 隨落이라고 볼 것이 아니라, 人同存在의 理想化이며 「神化」였음이 분명하다。樂天的인 人同의 本来的 制約性 脫皮 또는 補完에의 要求로서 나타나 것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보여 지기 때문이다。人同의 自己「神化」작업의 過程으로서의 神話는 그레시아 사람들의 世界를 異次元的으로 증명케했고, 또 孤独의 寂落으로부터 自己를 救出하는데 성공적인 것이기도 했던 것이다。

따라서 그레시아 사람들은 神話를 通하여 人間과의 「나이어로그」를 더욱 충실하게 할수 있었다。그들은 福받은 겨레였다。「나이어로그」가 풍성했기 때문이다。

孤独 곧 도야지 말의 「Einsamkeit」는 文字 그대로 하나 뿐이어서 고독하다。

한데 「나이어로그」는 혼자선 안되고 반드시 누군가 둘이 있어야만 可能하기 때문에 고독하지 않아서 즐거운 것이다。그레시아 말에서 「모노로그」의 「mono」는 하나의 뜻이며 「나이어로그」의 「dia」는 둘의 뜻이고



<佛敎大哲学科敎授> 鄭 璇

寬容倫理가 對話가능케
對話는 民主·說得의 體系

보면 우리는 여기서 도 아직 사전에도없는 도이 쉬 말 하나를 造語하면 어떻게 될까。「Zweisamkeit」라고 많이 다。「Einsam」이 아니고 「Zweisam」이니 対話는 非孤独의 뜻이 될 모양이다。

却說하고 「나이어로그」는 「dialogos」에서나는 말-따라서 「로고스」란 곧 말이란뜻이니 이래서 対話가된다。

〃불편도 더답없는 이 름이여!〃라고 한 寒月님의 詩世界는 日帝末의 韓民族의 孤独과 悲劇에 対한 넋두리가 아니고 무엇인가。그래서 번역명을 의미하는「dialektike」 역시 「dia」에서 시작한 것이고보면 두사람 사이의 多樣한 도도 眞実한 対話를 通하여서만 思想이 발전될 수있고 또 다양성을 띄울수 있음을 알 수있다。

「모노로그」와 独断論과 独裁制와 暴力과 破壞는 하나의 体系下에서만 可能한데 반하여 建設과 說得과 民主制와 調和論과 「나이어로그」는 또하나의 다른 体系의 산물이다。前者를 戦爭의 論理라고 할수있다면, 後者는 平和의 論理라고 할 수있을 것이다。변증법의 진정한 方向은 多樣의統一에 있다。民主의 世界는 多樣의 世界다。多의 理性的統一은 民主精神의 근간이되는 것이지만 多의 非体系的 統一은 反民主的精神일 뿐이다。百家가 爭鳴하고 千態万象이 있는그자리에서 우주의「하머니」를위하여 있을때 「但即是, 多即一」, 特殊即 보편」의調和의 世界가成立하는 것이다。対話의産物이다。寬容의 倫理로서의 存在가 열린다。

「소리」란 (Logos) -뜻 -存在」의 体系는 古代 그레시아 사람들의 생각 속에 底流로서 흐르고있었다。가장 기본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나와 다른 存在에 対한 寬容의 態度는 어떻게 可能한가!그것은 우선 「나이어로그」 아닌 「나이어로그스」를通하여서만 可能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都市전쟁과 環境革命

邢基柱 <師範大 敎授>

「펜실베니어」大学의 都市学者「E・A・가드킨드」박사는 그의 著書「都市의 貧困」에서 現代都市의 危機를 다음과같이 표현하고있다。「現代의 都市는 勝算이 없는 戰爭을 치루고있는 侵入者, 自滅할 정도의 세력으로 增加되고있는 自動車의 數, 그리고大衆의「非프로레타리아」라고 불리우는 産業制度等이 対抗해서 싸우고있는 것이다。」

「勝算이 없는 戰爭」에도 불구하고 政策当局은 현재 서울市의 洪水被害 결국 서울市의 洪水被害 現象을 멀리는 農村經濟의 不況→雜農民의 都市集中에 있지만 가까이는 雜農民의 定着地에 대한 소홀한 처리및 합률注射格인 汝矣島·蠶室里의 開発에 이유가 있어서도 雜農向都市의 人口压、低地帶에의 宅地進出 및 서울市의 都市政策등 一連의 現象과 계속 累積되고 있는 各種 都市問題와의 관계를 들수있을것이다。

都市問題의 根因은 인구의 都市集中에 있지만 나타난 問題의 横相으로 보아서는 古典的인 都市問題와 現代的인 都市問題로 両分된다。前者는 産業革命期에 典型的으로 볼수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안고있는 내용은 非衛生, 疾病, 貧困, 犯罪, 売春, 슬럼街의 形成등이 有機的 関聯을갖고 때우 깊게얽혀있는 문제이며, 都市社会 내지 도시복합체에의 그 기본적인 이해없이는 個別的인 해결이 不可能에가깝고 特定의 都市民에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都市民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것이다。왕년 연극한 서울市의 도시문제와 各種再開発事業과의 관계도 이 같은 後者의 입장에서이해하지 않는한, 再開発事業과 계속 累積되고 있는 各種 都市問題와의 관계를들수있을것이다。

都市問題의 根因은 인구의 都市集中에 있지만 나타난 問題의 横相으로 보아서는 古典的인 都市問題와 現代的인 都市問題로 両分된다。前者는 産業革命期에 典型的으로 볼수 있었던 것으로 그것이 안고있는 내용은 非衛生, 疾病, 貧困, 犯罪, 売春, 슬럼街의 形成등이 有機的 関聯을갖고 때우 깊게얽혀있는 문제이며, 都市社会 내지 도시복합체에의 그 기본적인 이해없이는 個別的인 해결이 不可能에가깝고 特定의 都市民에관한 문제라고 생각하기 보다는 都市民 전반에 관련된 문제인것이다。왕년 연극한 서울市의 도시문제와 各種再開発事業과의 관계도 이 같은 後者의 입장에서이해하지 않는한, 再開発事業과의

이가을에 읽은 책

존·스타인벡의 「眞珠」

京 泰 尹

「존·스타인벡」의 作品 경향의 두텁한 한계인, 목가적이고, 형식적인 로먼티시즘의 냄새를 강렬하게 풍기는 作品「眞珠」는 1937년 「생쥐와 人間」과 같은 연대에 발표된 中篇이다.

멕시코의 바닷가를 배경으로 해서 그곳의 한 土着民부부를 등장시켜, 그들의 원시적인 믿음과, 그들이 즐겨수 있는 樂園의 方法들을 그린 이 소설은 그의 다음作品인 「분노의 포도(The grapes of Wrath)」 그리고 노벨상 수상작인 1961년의 「불만의 겨울(The Winter of our Discontent)」 등 인간의 사회 밑음을 그린 그의 독자적인 사회관이 골적으로 묘사된 작품과는 달리, 序부터 結까지 한土民의 강인한 生에 대한 긍정과 그리고 그로부터 비롯된 숭화된 나를의 중교적 신념으로 진리을 이끈 걸작이다.

전작에 등장 아들 「교요띠뽀」를 구하기위해 백인사에게 모욕을 받한 어부 「끼노」는 그의 아내 「쿠아나」와 함께 바다로 나가 진주를 찾는다. 그리고 「끼노」는 이들의 약점으로 진주를 찾는 것과는 또다른 꿈상으로 가득찬 꿈을 찾고 있는것이다. 우연히 그들은 세계제일의 진주를 발견한다. 그리고 부락민의 부러움과 호기심을 모두 끌어 모은다. 이를 「교요띠뽀」의 열병을 진주를 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달려온 견습피 백인 의사에 의해 고쳐지나 결국 그의 진주때문에그는 아들을 잃고 말며 좋은 재운을 잃어 왔다고 진주에 대해 환멸을 느끼고 바다에다 던져버리고 즐거움는 스타인 벡 이상의 멕시코의 우화적인 說化한 단순한 소재로서 투텃한 伯性을 찾을수는 없으나, 그의 유니크한 언어구사와 상징적인 표현으로 인해서非物質的인 가치로서의 人間性을 「끼노」라는 士民을 通해 묘파한 作品의 주제는, 스타인벡 자신이 추구하는 現實의 리얼리티가 꾸밈없이 진실되게 표출되었다는점에서 1902年, 美國에서도 유서깊은 아일랜드계 교사인 어머니를 가진 스타인벡은 30년대 이전의 미국문단에 등장했 Lost Generation 계열의 영향을 전혀 받지않고 창작활동을 벌여 1929년 「황금의 잔」 발표이후, 세가지 作品들을 발표했는데, 前記한 「분노의 포도」(1939년 작)에서는 자연의 재해로 고향을 버리는 농부가족인공, 「통조오드」를 통해 실직기자 자신이 찾고자 했던 든만한 분위기의 휴머니즘을 분노의 휴머니즘으로 들면시켜 강한 사회주의적인 이데올로기를 부여명 어주는 사회문제 소설이고 「로미오·줄리엣」(1935)에서는 희극적 요소 있게한 희극적, 원시적인 우화적인 소설이다.

그들을 많하는 評者들의 대부분이 그를 어떤 정해진 유형에 끄집어 넣을 수 없는 作品경향을 지녔다고 많하나, 그의 발표작 전반에 흐르는 두텁한 주제는역시 여태한 힘수 없다는 人間의지의 代辯이며, 人間본연의 모습을 善으로 본 휴머니스트라고 할수 있다.

1962년 人間의 倫理觀을 꼬집은, 「불만의 겨울」로 노벨상을 받고, 책서 두에 『여기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과, 마음을살펴보라!』고 말했듯이, 존·스타인 벡은 끝까지 그의 모든 소설속의 인물과 배경에서 휴머니티와 리얼리티를 지울수 없었다고 할수있다.

이작품(진주)에서 주인공 「끼노」부부가 부르는 「아리랑」의 노래가 아니고 영상적이며 특징인, 그러면서도 그들의 종교적인 생활, 정열적인 생활속에서 얻어지고, 이루어진 노래인 것처럼 상징적인 미로서의 「적(enemy)의 노래」는 그들을 해치려는 불위기속에서만 들려오는 노래라해서 스타인벡의 감상적인 작품중, 휴머니티가 여전모습으로 見現되어 있으나 진주에서처럼 人間본연의 리얼한 모습이 가득담긴 소설은, 수필중, 수필중, 이들이라고 하고싶다.

<文理大 國文學科>

◇존·스타인벡

人間意志代辯한 牧歌的작품

寓話를 小說化한 걸작

宗教的신념으로 삶을 肯定

課外에서 배우다

章書閣의 宮體소설

金 次 大

◇拓本하는仏蹟조사반현

거의가 未發表作인 稀貴品 書誌學的 理解위한 實習

지난 7월5일부터 8월말까지 우리 國文學科 4학년생 전원은 시내 창경원내 章書閣에서 宮体原典小說目錄을 정리, 解讀하는 실습을 가졌다.

이 실습은 장서각측에서 매년 本校에만 특별히배려해온 것으로써 실로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이번 장서각학습은 宮体소설의 완전한 解得으로 國文學의 폭넓은 이해는 물론 書誌學的 理解를 도모하자는 두가지 목적을 들 수 있겠다.

이번에 우리에게 할당된 도서를 소개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玩月会盟宴」 「林氏三代錄」 「取勝樓」 「蓬萊閣談奇帝後」 「明珠奇逢」 「明行眞義錄」 등 여섯권으로서 장서각총도서가 약 10만권이라는 것을 생각할때 氷山一角에 지나지 않는다 할 수 있으나 이 책들에 대한 內容은 先覺者 우리나라 古代小說中 最大長篇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內容은 中國 宋나라때 이야기로 여러친구가 팔冊으로서 우리나라 古代 이 욕이라면 욕이라 할 수없겠다. 남편에 이 小說은 魏怒·魏行·除謀·孝·忠의 여러가지 場面이 다양하게 展開되고 있었다.

「林氏三代錄」은 39冊 總1320葉으로서 이것외에 異本으로 40冊으로 40권 되어있는 것이 있는데, 이異本에는 文句上 약간의差異가 있지만 그內容은 거의同一하다. 이 小說은 明나라 翌祖 문황제 永樂21년에 左丞相겸 구석봉초 왕 일희진의 妻 주씨가 남태성이 竜으로 변해 꿈 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들 창홍을 낳는데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된다.

作者는 後人이 林氏日記 또는 先覺者 우리나라 古代 小說中 最大長篇이라할 수 있을 것이다.

內容은 中國 宋나라때 이야기로 여러친구가 팔 冊으로서